2020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Ⅰ. 에티오피아 개황 ····· 1

Ⅱ. 에티오피아 정치, 경제, 산업, 정책·규제 환경 ····· 2

Ⅲ. 에티오피아 수출입, 투자, 공적지원, 프로젝트 동향 ····· 6

Ⅳ. 한-에티오피아 경제교류 현황 ····· 10

Ⅴ. 현지체류시 참고사항 ····· 14

Ⅵ. 대사관, 유관기관, 의료지원, 기타 긴급 연락처 ····· 19

Ⅶ. 주요 호텔, 한식당, 현지식당 ····· 20

Ⅷ. 무역관 오시는 방법 및 직원 연락처 ····· 21

Ⅰ 에티오피아 개황

1. 국가개요

국 명	■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위 치	■ 아프리카 동북부 (영어로는 Horn of Africa 지역이라고 함)
면 적	■ 1,104천km2 (농지 : 36.3%, 삼림 : 12.2%), 한반도의 5배
기 후	■ 연중쾌적(고지대) 저지대(고온다습) - 고원지대는 Afro-Alpine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음 (평균 16℃- 22℃).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고온다습 - 우, 건기의 장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기로 분류 - 온건기(Bega) 4월-5월, 대우기(Kiremt) 6월-9월, 냉건기(Meher) 10월-1월, 소우기(Belg) 2월-3월 - 연평균 강우량은 1,000-1,500㎜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대부분 강우량이 6-9월 우기에 집중
수 도	■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New Flower의 뜻) - 연평균 기온 20℃ (우기에는 5~10℃), 위도 9° -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 3위 고도 - 면적 : 530.14㎢ (서울, 605.3㎢의 0.9배) - 인구 : 324만명(서울, 약 1천만명의 0.3배)
인 구	■ 105백만('17년, World Bank), 연평균 증가율 2.5% ('17)
주요도시	■ 아디스아바바 (수도), 디르다와 (특별시)
인종구성	■ 셈족(Semites)계와 햄족(Hamitic)계 후예로서 오로모족 35%, 암하라족 27%, 티그레이족 6% 등 약 80여개 종족
언 어	■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 자음 33자 모음7자로 된 고유 표음문자 사용
종 교	■ 에티오피아 정교(Orthodox) 50%, 회교 40% 이상, 기타 토착 종교 최근 회교인구 급증, 비공식 통계로 50%
정부형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의회제도: 양원제(연방의회 108석, 인민의회 547석)
국가원수	■ 국가원수(상징적수반) : 살레워크 저우두(Sahlework Zewdu) 대통령 ■ 행정수반(대내관계, 실권자) : 아비 아흐메드 (Abiy Ahmed) 총리
기 타	■ 시차 : 한국대비 -6시간 ■ 환율 : 1 USD = 35.86 ETB (Ethiopian Birr, 2020.8 기준) ■ 전압 : 220V (돼지코 형태, 한국산 가전 사용에 문제없음)

2.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명목 GDP	십억 달러	63.1	72.2	76.8	80.3	85.9
1인당 명목GDP	달러	625.9	696.9	721.8	735.3	766.2
실질성장률	%	10.4	9.4	9.5	6.8	7.2
실 업 률	%	16.8	16.9	N/A	19.1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7.3	10.9	13.8	15.8
총수출	백만 달러	2,618	3,746	3,949	3,734	4,467
(對韓 수출)	〃	53.0	58.0	65.0	46.0	57
총수입	〃	11,960	16,649	15,772	14,706	14,807
(對韓 수입)	〃	97.0	105.0	110.0	109.0	92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9,342	-12,903	-11,823	-10,972	-10,340
환율(연평균)	ETB/US$	20.58	21.73	23.87	27.43	29.07

자료 : EIU, 무협, 중앙은행, 통계청 등

* GDP 관련 데이터는 회기 기준(2019년은 2018/2019 회기)

II 에티오피아 정치, 경제, 산업, 정책 환경

1. 정치환경

□ 국가 비상사태 이후 '18.4월 취임한 **Abiy Ahmed 총리**의 신속한 대내·외 행보를 통해 **정국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경주**

< Abiy Ahmed 총리 인적사항 >

* 1976년, Oromia주 출생
* MBA, 박사학위 보유
* 주요경력
  - 육군 중령 예편, 하원의원
  - 과학기술부 장관
  - Oromia당(OPDO) 총재

○ 지난 20년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 있던 **에리트레아**와 **종전 선언을 통해** HoA(아프리카의 뿔) 지역 통합 및 갈등 해소

- 현재 에리트레아 **2개 항구(Massawa, Assab) 접근도로 개보수** 및 항구 간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시

○ 또한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인해 Ethio Telecom(통신), Ethiopian Airline(항공), 전기 서비스, 철도, 설탕 등 **비효율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건실한 국영기업도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할 예정

□ 한편 '19.6월에 발생한 **쿠데타 시도**, '20.6월 말 오로모 출신 반정부인사 살해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코로나로 인한 총선 '21년으로의 연기 반대 세력 발호 등 **지방 및 종족간 갈등 표출**

○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던 **과격 폭력시위**가 아디스아바바 등 **대도시로 확산**되는 추세

2. 경제환경

□ 2020년 초에는 아직 잠재적 위협 요인이었던 **COVID-19**나 **정정불안**과 같은 요인이 최근에는 에티오피아 **실물 경제**에 큰 영향

ㅇ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 운송·조업·영업 등 **Value 체인의 붕괴**로 각종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

ㅇ NBE는 불과 **2~3개월 수입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외환 관리를 더욱 강화** 중

ㅇ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인 ETB 평가 절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NBE는 환율 관리를 통해 ETB 가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며, **점진적인 평가 절하**를 선호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급작스러운 평가 절화** 가능성

ㅇ 에티오피아는 **투자법 개정**, 에티오 텔레콤이나 에티오피아 항공과 같은 기존 독점 공룡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나 외국인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어, FDI 급감 추세

ㅇ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훼손**, 외화 부족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부족**,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 현지 화폐 평가 절하 등으로 두 자리수 이상의 **물가 상승률 기록 중**

□ 코로나로 인해 각종 경기 부양책 시행 중

ㅇ (재정) 에티오피아의 재정 정책은 **세수 확대**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 전망**. 특히 코로나 관련 용품 수입시 세금 면제, 각종 세금 부담 제한, 조세 이연, 부가세 환급 신속화 등 시행 중

ㅇ (금융) 에티오피아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 하에서 개인 및 기업에 의한 현금 인출 제한, 타격 섹터에 대한 채권 회수 기한 연장, 시중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출 및 신용 공여 확대 등

ㅇ (산업) 주로 산업단지에 위치한 수출 기업 대상으로 일시적 내수 판매 허용, 내륙 배송비 할인, 수출입 항공화물 운송료 할인 등 시행

3. 산업 환경

□ **제2차 경제개발계획(GTP II, '16~'20년)**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GDP 비중에서는 서비스(42%) > 농축산(36%) > 건설제조(22%) 순으로 갈 길이 먼 상황

○ **서비스업 비중**은 최근 3년간 **40%를 상회**하여 **버블성장**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도 **커피(33%), 참깨(15%), 채소류(8%)** 등 주로 저부가가치 농산품에 치중

○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으로서 관련 제품인 **화학, 중장비, 건자재** 수요가 높으며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수출**에서 동 제품들의 비중은 **70%** 이상
- 정부가 제시한 산업화 촉진, 성장동력 확보와 달리 **단기간내 '돈이 되는' 업종**에 과열

□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 **저렴한 인건비**와 **AGOA(美), EBA(유럽) 무관세 혜택**을 앞세워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

○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Bole-Lemi I**(Addis Ababa시), **Hawassa**(SNNPR주), **Mekelle** (Tigray주), **Kombolcha**(Amhara주), **Adama**(Oromia주), **Debre Birhan**(Oromia주) 등 9개 공단
- 에티오피아 및 韓, 中, 터키, 인도에서 직접·합작투자를 통해 주로 섬유제품을 생산
* 공단 내 설치된 공장건물(Shade)에 설비를 반입·설치하여 운영

○ 아디스 시내에 위치한 **Bole-Lemi II** 및 **Kilinto**는 '20년~'21 가동 예상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공단 현황 ('20.8월)]

연번	명칭 (가동/예정시기)	전체 면적(HEC)	1단계 면적 (HEC)	수도와의 거리 (KM)	현황
1	Bole-Lemi I ('14)	157	157	수도 소재	가동중
2	ICT Park ('15)	200	NA	수도 소재	가동중
3	Hawassa ('16)	400	130	275	가동중
4	Kombolcha ('17)	750	75	363	가동중
5	Mekelle ('17)	1,000	75	760	가동중
6	Adama ('18)	2,000	100	74	가동중
7	Bahir Dar ('19~)	1,000	75	578	가동중
8	Debrebrhan ('20~)	1,000	NA	130	가동중
9	Dire Dawa ('20~)	1,500	150	473	가동중
10	Jimma ('20~)	1,000	75	346	가동중
11	Bole-Lemi II ('20~)	186	NA	수도 소재	가동전
12	Kilinto ('20~)	377	NA	수도 소재	가동전

(자료 :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 - IPDC :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 of Ethiopia)

○ 에티오피아 **교역물동량의 85%** 이상을 소화하는 **지부티(Djibouti)항**에서 아디스아바바간 **트럭운송비(40ft Con.)**는 에티오피아물류공사(ESLSE) 기준 **USD 2,400** 내외, 물류비 부담이 큰편
- 최근 에리트레아와 평화협정 체결, Mekelle 공단의 경우 Massawa항 이용에 큰 기대

□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 송전망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들이 관심

4. 정책 · 규제 환경

□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16-'20)**에 따라 '25년까지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위한 4대 목표 및 9대 전략을 설정

* 중저소득국 : '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USD 1,005~3,955 내외의 국가 (WB)

최종목표	4대 목표	9대 추진전략
2025년 중저소득국 진입	① 연 경제성장률 11% 유지 ② 농축산업, 제조분야 기술, 품질 향상 ③ 전국민의 GTPII 동참노력 강화 ④ 민주적 개발도상국 위상 강화	① 기존의 성장, 개발추세 유지 ②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기반마련 ③ 중소기업, 제조업 육성 강화 ④ 국내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⑤ 도시개발 가속화 ⑥ 인적자원 양성 교육,보건 향상 ⑦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동참 유도 ⑧ 여성, 청소년 사회적 권리 강화 ⑨ 지속가능 개발추구, 환경보호 강화

○ 특히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세관 및 물류 시스템 개선**, △**투자자금 대출(50~70%)**, △**산업 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

○ 한편 △**과다한 물류비**, △**외환부족**, △**늑장행정**, △**고관세** 등은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

- 경제성장, 수출, 투자유치 등의 최근 실적은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

□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 **21개국과 투자보장 협정** 발효 중이고, 미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한국** 등 **17개국과는 이중과제 방지협정**을 체결

[주요 협정 체결국 현황 ('19.10월)]

※ **투자보장협정 (발효국)** : 알제리, 오스트리아, 중국,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수단,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터키, 예멘

※ **이중과세방지협약** : 미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러시아, 튀니지, 예멘, 이스라엘, 남아공, 수단,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한국('17.10.31일부)**

○ 자유무역협정으로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에도 가입 중이며 '19.5.30 발효된 **아프리카범자유무역지대(AfCFTA)** 참여국으로 **역내교역 확대 전망**

- **GDP 2.5조 달러, 12억 인구**의 거대시장 출현이 기대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난관 예상

* AfCFTA는 AU(African Union)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현재 54개국이 서명하고 27개국이 비준

□ 한편 **수출, 투자진출, 프로젝트** 수행 등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돌발변수**와 **자의적인 법규정 해석, 늑장 행정처리** 등은 실질적인 규제이자 가장 큰 애로사항

○ **(시장진출)** 심각한 수준의 외환부족으로 인해 **L/C 개설 지연이 만연**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대심리를 악용한 **결재 전 제품선적 요구, 무역사기**도 증가 추세

- 통상 **USD 10만 이하**의 LC는 **6~7개월, USD 1백만 이상**은 무려 **1년 이상**도 소요
- 에티오피아 보세구역에 **수출품 도착 후 2개월** 내에 **미 통관시 관세청에서 압수**

○ **(투자진출)** **중앙·지방**정부간 **힘겨루기**로 인해 **투자허가** 및 **인센티브**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투자 이행조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

- 사례1) **中기업 당나귀 도축장** : 도축장 가동 후 지방정부에서 **민원을 이유로 폐쇄**명령
- 사례2) A사 제조공장 : 당초 약속한 접근도로, 수도, 전기공급 지연으로 손실발생

○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계약사항과 관계없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최근 **발주처와의 법리다툼** 시 **에티오피아 법원**에서 심리토록 명시하여 다소 **불리한 상황**

- 비용 인정범위 등 **계약사항** 전반은 **세법**에 준하고 **각종 기록 및 증빙**은 **철저히 관리**

Ⅲ 에티오피아 수출입, 투자, 공적지원, 프로젝트 현황

가. 수출입 동향

* 하기 통계의 자료원은 KITA임

□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수출은 26~27억 불선에서 정체되어 있으나, 수입은 수입 규제 정도에 따라 변동폭이 심한 편

6

○ 미흡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수입제품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외환 부족으로 **수입 수요 충당 불충분**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수출입 현황]

(단위 : USD 백만, 증감율)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 출	2,618	3,746	3,949	3,734	4,467
수 입	11,960	16,649	15,772	14,706	14,807
수 지	-9,342	-12,903	-11,823	-10,972	-10,340

○ 수출은 커피, 야채, 유종, 화훼류 등 **농축산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해당 연도의 작황실적에 따라 수출실적이 좌우되는 취약한 상황

□ 주 교역대상국은 중국, 쿠웨이트, 인도, 미국, 사우디 등이며 대체로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유지

○ 중국과 오랜 기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중국이 수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는 중동에서, 고가의 기계류는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

['20년 4월 누계 에티오피아의 상위 5대 교역대상국]

(단위 : USD 백만, 비중)

순위	수출국	금액
1	수단	296
2	중국	103
3	홍콩	100
4	미국	85
5	이스라엘	41

(단위 : USD 백만, 비중)

순위	수입국	금액
1	중국	1,128
2	사우디아라비아	473
3	인도	351
4	쿠웨이트	206
5	아랍에미리트	179

○ 한국은 에티오피아 수출 수입 시장 모두 1% 수준이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로 인해 원활한 L/C 개설 시 수출확대 기대

□ 무기류 등 일부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명문화된 장벽은 없으나 △고관세, △늑장 통관, △내륙운송 지연, △자의적인 HS Code 적용 등이 실질적인 장벽

나. 외국인 투자동향

* 하기 통계의 자료원은 수출입은행임

□ '92~'20.9월까지 현 환율로 **총 40억불 유치, 투자 프로젝트 수로는 3,290건** 기록

○ **'16년 국가 비상사태**('16.10월~'17.8월) 선포에도 불구, '1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5억불을 유치하였으나, 그 이후 **지방지역간 갈등, 정정 불안** 등이 심화되며 '18년에는 '05년 이래 최악의 실적인 USD 1.2억불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급감 추세**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투자유치 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9.25	누계('92~'19.9월)
투자금액 (백만ETB)	7,800	17,505	4,376	1,598	1,799	141,218
프로젝트(건)	168	144	124	92	6	3,290

□ 아비 총리는 **대내외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년 **투자법 개정**, 텔레콤이나 항공과 같은 기존 독점 분야 공룡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 중이나 정정불안, 코로나 등으로 외국인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어 투자 감소 불가피

○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 수입애로**를 겪던 **외투 기업들의 철수사례 증가**로 **투자진출 관망세 확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및 위험 회피 선호** 등의 요인에 '21년도 역시 총선으로 인한 정정불안, 외환부족 문제 심화 등 지속 우려

- 투자자금 대출지원(50~70%), 5년~10년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수출기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 △ **높은 물류비**, △ **낮은 생산성**, △ **중앙·지방당국간 이견**, △ **외화 부족**이 **투자 저해 요인**
- 제조 기반 부재로 **현지에서의 원부자재 조달**이 수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원부자재의 수입** 조차 원활하지 않아, **로컬 원부자재로 현지 생산 후 수출 통한 외화 획득 전략이 현실적**

○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인해 Ethio Telecom(통신), Ethiopian Airline(항공), 전기 서비스, 철도, 설탕 등 **비효율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건실한 국영기업도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나 코로나로 인해 추진 지연

□ **국가별 투자실적**에서는 **중국**(합작포함)과 사우디, 터키의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분야별로는 **제조업**(73%), 지역별로는 **Oromia주**와 **Addis Ababa시**(78%)가 절대비중 차지

○ 특히 중국이 중국전용공단의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프라**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의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투자

[에티오피아의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투자현황 ('92년~'20.9월)]

(단위 : 십억ETB, 비중)

순위	국가별			분야별			지역별		
	국가명	금액	건수	분야	금액	건수	지역명	금액	건수
1	중국	31(22%)	867(26%)	제조업	103(73%)	1,653(50%)	Oromia	59(42%)	958(29%)
2	사우디	15(11%)	47(1%)	건설업	14(10%)	221(7%)	Addis Ababa	51(36%)	1,846(56%)
3	에-중 합작	13(9%)	121(4%)	농업	13(9%)	334(10%)	Amhara	14(10%)	122(4%)
4	터키	8(6%)	99(3%)	부동산업	5(4%)	654(20%)	SNNPR	7(5%)	104(3%)
5	영-네덜란드 합작	7(5%)	5(0.2%)	기타	3(2%)	68(2%)	Multiregional	4(3%)	151(5%)
37	한국	0.6(0.5%)	44(1.3%)	호텔업	2(1%)	149(5%)	Tigray	3(2%)	47(1%)

다. 공적개발 지원현황

* 하기 통계의 자료원은 에티오피아 재무부(MOF)임

□ 에티오피아 '18/'19 회기 기준으로는 총 **USD 9.6억**의 유·무상 차관을 집행함

○ 동기 **무상 차관 집행**은 약 **USD 7억**으로 전체 대비 72.5%를 차지하였고, **유상**은 **USD 1.4억**으로 14.7%, **기술원조**는 USD 1.2억으로 12.7%를 차지.

- 유무상 차관 집행 실적 1위는 영국의 DFID(국제개발부)로서 USD 3.5억을 집행하여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미국의 USAID가 USD 2.8억을 집행하여 29%를 차지.
- **무상차관**은 **지속 감소** 중인 반면 **유상차관**은 급증가 중으로 **경제, 산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유상차관**의 증가는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에 긍정적 요인**

○ 한편 **유상차관 증가**로 인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외 채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만기상환 도래**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

- **의회**의 **신규차관 통제**에도 불구, 적정 인프라 구축시 까지 **차관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 유·무상 차관의 분야별 집행에서는 **농축산업**의 비중이 **37.4%**로 가장 큰 가운데 **범분야**(Cross-Cut, 14.3%), **보건**(10.5%), **도로·물류**(9.5%), **제조업**(8.0%), **상하수도**(6.6%) 순으로 비중을 차지

○ '16년 실적과 비교 시 **농축산업, 도로·물류, 전력은 감소**하고 **제조업과 상하수도는 증가**

['17년 지원 분야별 공적개발자금 집행현황]

(단위 : USD 백만)

경제분야			사회분야			인프라분야			범분야+기타분야		
분야	금액	비중	분야	금액	비중	분야	금액	비중	분야	금액	비중
농축산업	1,072.1	37.4%	보건	323.2	10.5%	도로·물류	292.6	9.5%	범분야	439.4	14.3%
제조업	245.5	8.0%	상하수도	203.2	6.6%				정부역량강화	24.7	0.8%
기타인프라	36.2	1.2%	교육	139.8	4.5%	전력	179.4	5.8%	인구정책, 관광	2.6	0.1%
기타(6개분야)	39.6	1.3%	**합계**	**666.2**	**21.6%**	**합계**	**472.0**	**15.3%**	**합계**	**466.7**	**15.2%**
합계	**1,317.6**	**47.9%**									

□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아프리카내 원조 금액 기준 1위** 국으로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 개발, 교통·에너지, 교육 등의 중점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이며 개발 협력 관련 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 특히 종래의 순수 ODA 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나 코트라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및 **산업형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도국 대상 역량 전수), 수출입은행의 **EDCF** 등 다양한 **기업 참여형 ODA**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 특성상 이를 활용한 진출 전략 매우 유효

- 예로, KIAT는 산업 ODA로 한국 섬산연 등과 연계하여 **Bole-Lemi II** 산업단지 내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추진 중

라. 프로젝트 동향

*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발표한 PP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에티오피아의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 **도로 건설 및 개보수**, △ **발전소 건설**(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송전망 구축** 등이며 대부분의 자금조달은 유상차관에 의존

○ **에티오피아 도로청**(ERA-Ethiopian Road Authority)이 총괄하여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 **내륙국가의 단점을 극복**하고 **연 11% 경제성장**을 실현코자 노력

- 또한 인근국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충을 통해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에 대비한 **역내무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에티오피아의 주요 도로망 >

○ 도로건설 프로젝트 대다수는 **WB와 AfDB**의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며 **한국은 EDCF**로 **모조-아와사**(Modjo-Hawassa 2공구, 대우건설), **고레-테피**(Gore-Tepi, 현대산업개발) 구간 도로건설 추진

- WB와 AfDB 자금으로 추진되는 **시공사업**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한 수준이나 **설계·감리**의 경우 **다수의 한국 엔지니어링사가 수주경쟁**에 적극 참여 중

○ '18.11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총 **USD 11억 규모**의 **3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현재 **각 F/S 진행 중**

구간명	통과지역	총연장	공사금액	공사기간
Awash - Mieso	Afar주, Oromia주, Somali주	71km	USD 2.3억	3~4년 예상
Adama - Awash	Afar주 3지역, Oromia주 East Shewa지역	133km	USD 4.4억	4~5년 예상
Mieso - Dire Dawa	Somali주, DIre Dawa시	138km	USD 4.6억	4~5년 예상

□ 에티오피아 **총 전력**(약 4,300MW)의 **90%는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화·산업화 촉진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해 **PPP 방식**을 통한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 추진 중

○ 수관개에너지부(MoWIE - Min. of Water, Irrigation & Energy) 산하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 - Ethiopian Electric Power)가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총 35개 발전 프로젝트를 관리

○ 이중 **PPP 방식**으로 총 **USD 52.8억** 규모의 16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 6개**에 **USD 36.2억**, **태양광 발전소 8개**에 **USD 16.6억**의 공사비 예상

- 수력발전소 6개 신규프로젝트 각 F/S 진행 중
- '19년 초 2곳의 태양광 발전소(Gaad 및 Dechato 지역)는 사우디 업체가 낙찰, 나머지 프로젝트는 RFP(Request for Proposal) 추진 단계임

[신규 16개 PPP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구분	발전소 명	해당지역	발전량(MW)	전력량(GWh)	공사비(USD백만)	가동시기
수력	Genale VI	Somali	246	1,542	588	'28년
	Dabus	Amhara	798	3,433	740	'24년
	Halele + Werabessa	SNNPR	436	2,029	886	'28년
	Chmoga Yeda I & II	Amhara	280	1,102	540	'23년
	Genale V	Somali	100	558	298	N/A
	Geba I & II	Oromia	372	1,749	572	'25년
태양광	Mekele	Tigray	150	263	180	'21년
	Humera	Tigray	150	263	180	'21년
	Welenchiti	Oromia	150	263	180	'21년
	Weranso	Afar	150	263	180	'21년
	Metema	Amhara	125	219	225	'21년
	Hurso	Somali	125	219	350	'21년
	Gaad	Somali	125	219	180	'21년
	Dechato	Afar	125	219	180	'21년
풍력	Debre Birhan	Amhara	126	281	150 - 200	TBD
	Aisha II	Somalia	150	630	150 - 200	TBD

(자료 :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EP))

Ⅳ 한-에티오피아 경제교류 현황

가. 교역

* 하기 통계의 자료원은 한국무역협회(KITA)임

□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규모는 **USD 1.5~2억(수출 USD 1억, 수입 USD 6천만 내외)**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임에도 교역규모는 다소 제자리 걸음

○ '20.7월 기준 에티오피아는 한국 기준으로 95대 수출대상국, 101대 수입대상국에 불과하나 한국은 '20년 4월 기준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보아 수입대상국 19위, 수출대상국 16위로 에티오피아내 한국의 위상은 높음

○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기 때문에 **외화 배정**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큰 폭의 수출 증대 기대 가능

- '16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외국인 투자급락, 외환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개혁 드라이브 중
- 단, 외환부족은 현재도 지속, '19년 이후에도 새로운 외환 규제가 도입, 강화되고 있으므로, 외화 배정 우선 할당 품목 위주로 시장 개척 노력 경주 필요

[한-에티오피아 교역현황 (USD 백만, 증감율)]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	'20.6월
수 출	125 (-26.5%)	160 (28%)	178 (11.3%)	165 (-7.3%)	145(-12.1%)	95 (21.8%)
수 입	50 (0%)	52 (4%)	59 (13.5%)	53 (-10.2%)	59 (11.3%)	22 (-4.3%)
수 지	75 (-37.5%)	108 (44%)	119 (10.2%)	112 (-5.9%)	86(-23.2%)	-73 (N/A)

□ 주요 교역품목으로 **한국**은 **화학제품·건설중장비 등 건설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커피·참깨·화초류 등 주로 농산품**을 수입

○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관련 방호용품 **의약품 등에 대해 외화 우선 할당**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부터의 의약품 수출은 보합세

- 오히려 합성 수지, 건설중장비,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증대

['20.7월 누계 한-에티오피아 주요 수출입 품목 (MTI 4단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USD천)	증감율	분야	금액(USD천)	증감율
1	합성수지	13,314	38.5%	커피류	31,487	15.5%
2	건설중장비	8,713	61.7%	채유종실	2,228	151.3%
3	기타석유화학제품	7,535	-51.4%	화초류	707	-23.4%
4	의약품	4,231	0.1%	기타축산물부산물	342	100.0%
5	승용차	4,192	40.8%	집적회로반도체	94	N/A
	수출총계	**60,504**	**2.6%**	**수입총계**	**35,122**	**17.0%**

○ 에티오피아 **커피**는 **총 수입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기호식품 수요 증대로 **커피 수입 증대**

2. 투자진출

* 하기 통계의 자료원은 수출입은행임

□ '96년 최초 투자신고 이래 '20.1분기까지 **21개 법인, USD 46.7백만 투자**

○ 에티오피아의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18년 USD 1천만**의 투자 후 **투자 환경 악화**로 **투자 감소 및 투자 회수 건수 증가 추세**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실적]

(단위 :개사, USD천불, 건수)

연도	'96~'14	'15	'16	'17	'18	'19	'20.5월	누계
신규법인수	10	3	2	3	1	2	0	21
투자금액	4,504	6,923	11,534	5,733	10,105	6,702	2,752	47,852
신고건수	42	78	49	18	50	58	11	305
신고금액	7,602	14,308	13,352	11,227	7,558	11,974	3,037	68,558
송금횟수	42	80	42	29	61	59	14	325
회수건수	1	1	0	0	1	4	6	13
회수금액	64	91	0	0	500	1	16	672

○ △ 동남아 **인건비 상승** 압박, △ **AGOA(對미), EBA(對유럽)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의류·신발·가방 등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로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진출**이 주종

□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봉제업 등 **제조업**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건설업**(29%) > **도소매업**(11%) > **기타(7%)** 순이며, 신규법인설립수로는 **대기업**(57%) > **도소매업**(14%) > **기타**(24%) > 건설업(5%) 순

[한국의 업종별, 주체별 對에티오피아 투자실적]

(단위 : USD백만, 비중, 개사)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투자금액	28.2(60%)	10.3(22%)	5.3(11%)	2.9(7%)
신규법인수	12(57%)	1(5%)	3(14%)	5(24%)

○ **제조업**은 **의류**(신티에스, 영원무역, 세양물산), **가방**(풍국산업), **철강**(이코스) 기업들이 대표적임

○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와 같이 **대표 성공사례가 부재**하여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결정을 고심**하는 반면 **중국, 인도**는 최근 더욱 **과감한 투자행보**를 지속

- 글로벌 의류기업 **PVH**(美)는 **공장운영** 및 **로컬 원자재 기업 발굴·육성**(원가절감)도 병행

□ 투자 진출에 앞서 잦은 출장 및 현지 파트너, 코트라를 통한 **현지 실정 파악** 필수

○ 수출 제조업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 **높은 물류비**, △ **낮은 생산성**, △ **관료주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 △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 열악**, △ **조세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등으로 초기 투자 계획 수립시의 **ROI**(Return on Investment)와 실제 투자 집행 후의 ROI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의 필요

3. 에티오피아의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요약** : 동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되온 양국 간 교류 역사와 함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 ODA 공여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관심도 증대**되는 등 **무역, 투자,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협력대상국임**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억명 이상**의 인구, △정부주도의 **고속성장**, △풍부한 **미개발 자원**,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등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 **(내수시장)** 1인당 GDP는 USD 1천 이하이나 **실질 구매력 향상**과 **소비지향 문화** 확산 중

○ **(경제성장)** 중장기 정책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산업화 촉진**으로 **10%대 건실한 성장** 실현

○ **(부존자원)** 풍부한 **농토**, 금 등 주요**광종** 수출, 최근 유전 발견 등 **미개발 자원** 관심 증대

○ **(평화유지)** 에리트레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인접국과의 평화 모드로 **동아프리카 정세안정** 기여

□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투자진출, 개발협력** 등 아프리카의 **다목적 전략국**에 더하여 향후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 확대 필요

○ **(수출)**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범람**에 질린 소비자들이 조금씩 **품질 중시로 전환**

- 한국산에 대한 **逆샌드위치** 인식 확산 (中 대비 가격↑, 美·EU 대비 가격↓ 품질 비슷)
-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에서 **의료(정부조달), 공산품(소비재)** 등으로 수출다변화 가능

○ **(수입)** **커피, 참깨** 등 주력품목 외에도 **가죽, 축산물부산물, 가공식품** 등도 고려 가능

- **수출 잠재력** 대비 **저평가**된 제품 다수, **무상차관**으로 **농업 역량강화** 추진에 박차

* 한국은 농진청(KOPIA)이 종자 개량을 지원 중, 서방은 계획경작 및 유통·저장창고 지원 등 검토

○ **(협력)** **형제의 나라**(한국전 파병), **초고속 성장의 롤 모델**인 한국에 다양한 **경험전수 기대**

- **EDCF**는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공공시스템** 구축으로 영역 확대 중
- **무상차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훈련, 낙후지역** 대상 지원 강화
- **환경, 에너지, KSP** 등 각 정부부처에서 자체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

○ **(투자)**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AGOA(美), EBA(EU) 무관세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전진기지**로서 관심 고조

- 낮은 생산성, 높은 물류비의 단점에도 **동남아 대비 1/3 수준의 인건비**는 매력적인 요인
- **중국**의 경우 중국기업 전용 **동방산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입주가 시작된 **국영공단**에는 **중국, 인도, 터키** 봉제업체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
- 이밖에 **의약품**의 경우 **수출**과 더불어 **에티오피아 정부조달 시장**을 겨냥하여 진출

4. 주요 경제협력 의제

□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여 교통, 수자원, 에너지,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무상 차관공여**를 통한 경제 협력 수요증가

○ 고레-테피(Gore-Tepi) **고속도로**, 남부 **송전망** 건설, 지하수 활용 **관개수로** 개발,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참여 중

- 다만 수원국의 **사업 변경**, 각종 규제나 현실적 제약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히 발생

○ 최근 들어서는 사업당 **USD 2~3천만** 내외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토지·공간 정보시스템** 등 우수성이 널리 입증된 **한국형 공공관리시스템** 지원 등으로 다양화 추세

- 또한 **KSP** 사업, **섬유테크노파크**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등 **각 부처의 자체 ODA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에티오피아 정부와 활발히 협력 중

□ 아비 총리의 '19년 방한시 양국간 정상회담(8.26)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는 등 **MOU 5건 체결**

○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관세 행정 현대화, 양국 간 표준 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향후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사절단 파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경협의제로 △ **에티오피아의 대내·외 정세**와 △ **Abiy 정권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기초하여 **선제적인 발굴과 제안** 필요

○ **(에리트레아) Massawa, Assab항**을 에티오피아의 **수출입 전용 창구**로 활용하고 **UN제재 해제('18.11월)**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지원 및 공동사업 개발** 가능

- **지부티(Djiobouti)** 의존적인 **고비용 교역구조**의 조속한 탈피를 위해 에리트레아의 Masswa, Assab항의 **화물 처리능력 확대** 및 접근도로·철도 등 **기초 인프라 개선** 유망

- 또한 국경지대 **광물자원 공동개발**, 에티오피아 남부 - 에리트레아 항구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 등 **지하자원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관심 고조

○ **(PPP프로젝트) 증가일로의 국가부채**로 인해 인프라 구축을 차관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로 **프로젝트 활성화**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

○ **(제조업 육성)**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 **수입대체품목 개발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을 위해 경제성장의 다양한 모멘텀 확충 노력

- 미숙한 공단개발·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의 **FEZ 개발경험 전수**도 필요 분야

○ **(농업 경쟁력)** 큰 잠재력에도 불구, **커피 등 주력품목**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개선** 시급

-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탈피, 종자개량 ⇢ 계획경작 ⇢ 유통 및 관리 시스템 ⇢ 농산물 저장센터 구축까지 **유·무상 협력**을 통한 **통합 패키지 지원사업** 검토 가능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동 자료에서 찾기힘든 정보는 KOTRA 국가정보 - 에티오피아 참조 요망 (news.kotra.or.kr)

□ 입국절차 (도착비자 발급 시 주의 사항 위주)

○ 한국에서 비자 발급 후 에티오피아 방문을 추천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착비자(관광비자 1개월) 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필수적으로 현금 USD 50 준비

○ 비자발급 창구에서 담당자가 입국목적을 질문 할 경우, 관광이라고 답변해야함

○ 별도의 비자 신청 양식 및 초청장은 불필요하며 입국 심사대 왼편에 위치한 창구에서 대기 후 여권 및 비자발급 비용 제출, 옆 창구로 이동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

○ 항공편 도착이 몰릴 경우, 도착비자(관광비자 1개월) 발급에 기본 1~2 시간 소요되는 바, 가능한 한 창구로 신속히 이동

※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 절차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주한 에티오피아대사관이나 주에티오피아한국 대사관을 통해 **최신 입국 절차를 확인 후 입국 요망**함 (8.26 현재는 7일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5일이내 음성확인서 있을 시 14일 자가격리 허용 중이며 **도착 비자 원칙 불허**)

□ 기후

○ 넓은지형, 다양한 고도로 인한 다양한 열대 몬순기후 (고지대 연중쾌적, 저지대 고온다습)

○ 수도인 아디스아바바(해발 2,400m)와 북부의 고원지대는 평균 해발 2,000m 지역에 위치한 Afro-Alpine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음

- 수도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16-20℃로 1년 내내 꽃이 피고 쾌적함
- 다만, 대우기(6~9월) 기간에는 습기가 많고 흐리며, 야간 및 새벽뿐 아니라 한낮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고도가 낮은 동부 지역은 고온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남부와 서부 지역은 열대기후임

□ 옷차림

○ 의류 및 신발은 대부분 춘추복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으며, 하복 및 샌들은 온건기 및 남부와 동부 저지대 방문시 등을 대비하여 약간만 준비하면 됨

○ 한낮의 햇빛은 뜨겁고 강한 편이므로 썬글라스 및 모자 등이 필요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자주 불어 그늘은 서늘하므로 티셔츠, 카디건 등 얇은 옷을 여러개 착용

○ 일교차가 크므로 스웨터, 가죽자켓, 트렌치 코트 등의 겉옷과 스카프 등이 매우 유용함

□ 교통

○ 장거리 교통

- 아디스아바바를 거점으로 국내 주요지역으로 가는 국내항공편이 이용 가능. 정거리 여행시에는 시외버스도 있으며, 티켓은 전날 예약하고, 출발 시각은 보통 새벽 6시 임.

○ 택시

- 주요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택시와 미니버스(승합차 형태)가 있으나, 미니버스는 외국인이 타기에는 언어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주로 택시(가격 협상 필요)를 타며, 최근에는 Ride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고 우버처럼 사용 가능하여 권장할 만함(흥정은 필요 없으나, 현금 결제 필요)

□ 유선전화

○ 국제전화의 경우, 한국 기준 1분 당 약 10.5 ETB(약 0.6 USD)의 비용 소요. 팩스 등도 통용. 외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전화를 걸 경우, 국가번호는 251, 아디스아바바 지역번호는 01, 핸드폰 앞자리는 09.

○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울(02)로 전화할 경우 한국 국가번호 82번 앞에 국제선 코드 00 두 자리를 추가한 후, 서울 지역번호 앞 0 번을 생략한 번호를 누르면 됨

- 예시 (KOTRA 본사 대표전화) : ☎ 00-82-2-3460-7714

□ 선불제 SIM카드 구입

○ 여권(또는 ID)을 지참하고 Ethio Telecom에 가서 SIM Card 구매·등록 및 선불카드(Mobile Card) 구매·충전 후 사용가능

- SIM카드 가격은 약 50~100비르 내외, 100비르 단위로 사용량을 충전하여 사용
- (충전) *805*선불카드 스크래치안의 번호#통화버튼, (잔액확인) *804#통화버튼

○ 후불제는 대사관, 국제기구, 원조기구 및 외국인 투자회사 등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므로 단기 출장자는 선불제 SIM 카드 구입이 보통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및 환율 : Birr(비르), USD 1 = Birr 35.86 (2020.8월 기준)
- 에티오피아 내의 외화 사용은 금지되며, 여행객의 경우 현지화로 환전 후 사용

○ 환전 가능 장소
- 공항 환전소 및 주요 호텔(힐튼, 쉐라톤 등) 내 입주하고 있는 은행 *월-토 이용가능

○ 신용카드
- 국제신용카드(Master, VISA)만 사용 가능하나 일부 호텔 및 상점외 사용 불가
  * 최근 외국인 이용이 잦은 현지식당이나 마트에 가능한 곳도 있음
- 현지 상점 및 여행사에서 결재 후 반드시 인터넷에서 금액을 재확인
  *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ATM은 문제 발생시 대처 용이성을 위하여 호텔 또는 은행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

□ 전압

○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20V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처럼 한가지 소켓 모델만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소켓 모델이 통용되고 있는바, 필요시 현지에서 아답터 등 구매 필요

○ 전압이 불안정하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단전이 빈번하며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기·전자제품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음

□ 시차

○ 에티오피아와 한국과의 시차는 -6시간 * GMT+3 섬머 타임 없음
- 한국의 오후 6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정오 시각임

□ 달력

○ 에티오피아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아직도 국제 표준인 Gregorian Year 대신 자체 Ethiopian Year를 쓰는 경우가 많아 연도나 날짜 관련 확인 필요

□ 치안

○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대도시인 메켈레, 바하르다르, 곤다르 등 주요도시와 하라르, 랄리벨라, 악숨 등 유명관광지도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정이 되어있음

○ 다만, 상기 치안이 좋은 지역일지라도 야간에 혼자서 길을 걷거나 할 경우에는 폭행, 강도 등 위험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메르카토(전통시장), 피아사(구시가지), 볼레 대로(신시가지) 및 메스켈 광장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소매치기, 날치기 및 핸드폰 절도 주의

○ 지역에 따라 총기 소지가 빈번한 지역이 있으며, 최근 아디스아바바에서도 간혹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 등이 보고되고 있음

□ 위생

○ 아메바 등 수인성 전염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익히지 않은 음식과 수돗물은 금물

○ 상시 벼룩에 물릴 수 있으므로 비위생적인 공간 접촉 시 주의 요망

□ 고산병 증상 및 대처

○ (정의) 고산병은 낮은 지대에서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하였을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급성반응. 고지대로 올라가면 점차 공기중 산소농도가 떨어져 동맥에 녹아드는 산소가 줄고 저산소증 발생. 사람마다 적응력이 다르며, 산소농도, 등산속도 및 신체활동량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

○ (증상) 두통과 숨이 차고 답답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비특이적인 식욕저하, 구역질,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과 권태감, 위약감, 소변량 감소 및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진단) 고산병은 증상을 보고 판단하며 검사 방법은 없음

○ (치료)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음. 음주, 흡연, 스트레스와 지방과 염분을 피하고, 고탄수화물식 섭취가 좋음. 필요시 성인의 경우 아스피린 반알 정도를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

□ 미디어

○ (TV) 국영방송사로는 EBC가 있고 지역방송사는 Addis TV, ORO 등이 있으며 대부분 뉴스나 전통문화 공연에 관한 내용임 (컨텐츠 매우 부족)

○ (신문) 영자매체로는 일간 Daily Monitor, 주간 Capital, Fortune, Reporter 등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해 폭넓게 다뤄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생필품 구입 (아디스아바바)

○ 물, 식료품, 육류, 채소 및 야채류 구입 시 외국인들이 쉽게 찾는 슈퍼마켓으로는 밤비스(Bambis), 쇼아(Shoa, 체인형), 판투(Fantu, 체인형) 등이 있으며 슈퍼마켓 대다수가 주방용품 등 기타 생활용품도 같이 판매
- 한번 구입 후 교환, 환불이 쉽지 않으므로 제품 이상여부 확인 요망

○ 슈퍼마켓 외 도소매 전문시장인 Merkato와 경기장(Stadium)에서 각종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치안이 좋지 않음을 유의

□ 주요 명소 (아디스아바바)

○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Ethiopia) : 월~일(08:30~17:00), 공휴일 휴관
- 시내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초의 인류로 추정되는 "Lucy"의 유골화석 (약 320만년 추정), 역대 에티오피아 황제의 관 등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

○ 아디스아바바대 박물관 (Museum of Addis Ababa University) : 월~일(08:30~17:00), 공휴일 휴관
- Haile Selassie 황제의 궁전, 에티오피아 민속박물관 및 전통 회화 전시실을 보유

○ 삼위일체 교회 (Triniry Cathedral) : 월~일(08:00~12:00), (14:00~17:00), 공휴일 휴관
-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한 교회로 Selassie 황제가 이탈리아에 대항에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 내부에 다수의 벽화 및 황제의 용상을 소장 및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군인의 유해 안치

□ 주요 명소 (지방)

○ (Bahar Dar, 바하다르) 암하라 주의 수도로서 청나일강의 수원지인 Tana 호수와 Blue Nile 폭포 및 기독교 순례지 등으로 유명.

○ (Debra Zeit, 데브라 자이트) 주말 휴양지로서 Bishoftu, Hora 등 호수가 소재하며, 인근에 휴화산인 Mt.Zuqualla가 있음.

○ (Langano, 랑가노 호수) 물 빛이 황토색이나 수질이 깨끗하여 국내에 유일하게 수영, 낚시, 캠핑, 보트타기를 즐기는 호수. 인근에 Abita-Shala 호수 국립공원이 있음.

○ (Axum, 악숨) 에티오피아의 고대 수도로서 시바 여왕의 유적지이며, 에티오피아 인들이 십계명 법계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St.Mary of Zion 교회가 있음.

□ 현지 공휴일 (2020년 기준)

1월	▪ 7일 (에티오피아 크리스마스) ▪ 19일 (예수 공헌일)	5월	▪ 1일 (노동절) ▪ 5일 (승전기념일) ▪ 24일 (라마단 종료일) ▪ 28일 (공산정권 붕괴일)	7월	▪ 31일 (이슬람 희생절)
3월	▪ 2일 (아드와 전승기념일)			9월	▪ 12일 (에티오피아 신년) ▪ 28일 (참십자가 발견일)
4월	▪ 17일 (성금요일) ▪ 19일 (부활절)			10월	▪ 29일 (모하멧 탄신일)

VI 대사관, 유관기관, 의료지원, 기타 긴급 연락처

□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251-113-728-111, 112, 113, 114)

* Nifas Silk Lafto street No. 0748, House No. 856, Addis Ababa, Ethiopia (P.O Box 2047)

□ 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251-113-720-339, 340, 341)

* Kirkos subsicy, Woreda 05 House No. 097, Addis Ababa, Ethiopia (P.O Box 5652)

□ 수출입은행(K-EXIM) 에티오피아 사무소 (+251-113-853-035 / +251-113-853-000)

* House No. New, Woreda 04, Nifas Silk, Lafto Sub-city, Addis Ababa, Ethiopia (P.O Box 7720)

□ 긴급 의료지원

○ **명성기독병원(MCM-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 최고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 한국인 병원장, 간호사와 외국인 의료진이 진료
- 주·야간 응급센터 : 011-629-4602 (앰뷸런스 운영)
- 대표전화번호 : 011-629-2963 (FAX 011-629-2795), 신속진료 : 092-236-6401
- 한국어 통화 가능전화 : 092-275-0101 또는 092-130-7284
- 홈페이지 및 이메일 : http://www.mcmet.org, msmcmet@gmail.com
- 진료과목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 **Nordic Medical Centre**
- 서구식 병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 **풍토병 전문병원**
- 풍토병 발병 시 일반병원 진료 후 전문병원으로 후송 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꼭 전문병원을 방문
- 명성기독병원(011-629-2963) 추천

□ 기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연락처

○ 긴급상황 : 911
○ 아디스아바바경찰 : 011-155-9122
○ 교통경찰 : 010-662-8085, 011-552-8222
○ 연방경찰 : 011-551-2744
○ 정보(Information) : 011-552-6302

VII 주요 호텔, 한식당, 현지 식당

□ 주요 호텔 리스트

호텔명	전화번호
Sheraton Hotel	+251-115-171-717
Hilton Hotel	+251-115-170-000
Intercontinental Hotel	+251-115-180-444
Capital Hotel	+251-116-672-100
Hyatt Regency Hotel(추천)	+251-115-171-234
Ramada Hotel(추천)	+251-116-392-029
Bole Ambassador Hotel	+251-116-188-284/281
Radisson Blu Hotel (추천)	+251-115-157-600

□ 주요 한식당 리스트

식당명	전화번호
아리랑 (Old Airport 지역)	+251-113-204-606
마시랑 (Old Airport 지역)	+251-113-204-606
레인보우 (Bole 지역, 라마다 호텔 인근)	+251-911-457-790, +251-116-637-964
대장금 (Bole 지역, 라마다 호텔 인근)	+251-910-568-860

□ 주요 현지식당 리스트

식당명	전화번호
Castelli's (이탈리아)	+251-111-563-580
Abucci (이탈리아)	+251-912-501-827
Gusto (이탈리아)	+251-934-497-861
Sishu Burger (햄버거)	+251-920-061-063
Yod Abyssinia (에티오피아)	+251-116-612-985
Sakura (일식)	+251-911-057-030

Ⅷ 무역관 오시는 방법 및 직원 연락처

□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오시는 길(볼레 공항 →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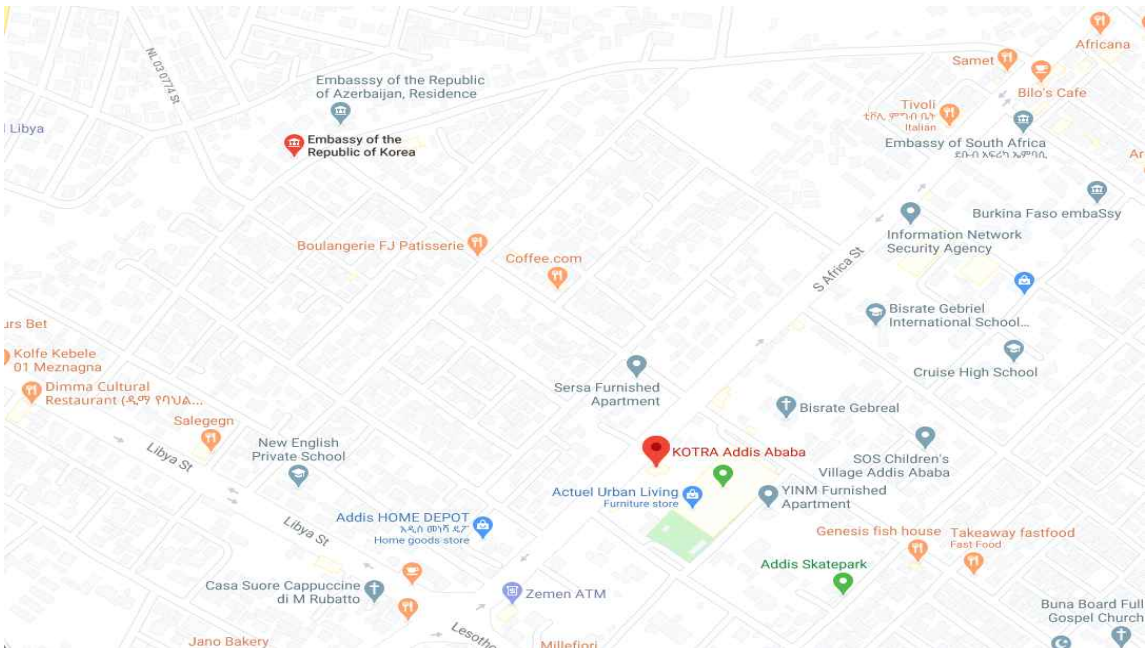
○ 공항에서 아디스아바바 무역관까지는 차로 약 40분~1시간 가량 소요되며, 택시 사용시 약 현지화 300 Birr (약 10 USD 가량) 내외로 흥정이 필요

- 근래에는 우버와 비슷한 Ride라는 앱을 깔고 차를 부르면 더 편리함. 그러나 기사 대부분이 내비를 쓸 줄 모르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South African Embassy나 Laphto Mall까지 가자고 한 후 추가 설명이 필요

□ 무역관 주소 및 약도

○ 주소 : Nifas Silk Laphto, Woreda 3, House No. 977, Bisrate Gebriel Area Next to Bayne Bldg. 4th Floor, Addis Ababa, Ethiopia (P.O.Box 5629, Addis Ababa, Ethiopia)

○ 전화: +251-113-204-305 / 팩스: +251-113-204-396



□ 무역관 직원 및 연락처

성명 및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조은범 관장	+251-912-643-185, freeman@kotra.or.kr
김이레 대리	+251-912-643-453, irekim@kotra.or.kr

※ [중요] 해외에서의 청탁 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16.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